

광주시, 청렴시책 확 달라진다...오픈채팅·현장소통방 신설

1차 청렴회의의...비전 공유·간부공무원 '3행 3무' 실천 결의

광주시가 익명성 보장 오픈 채팅방과 현장 소통방 개설 등 청렴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감기정 시장, 고광완 행정부시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등 간부공직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는 올해부터 새롭게 운영되는 협의체로, 광주시장이 직접 청렴시책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회의 참석 간부들은 소통과 배려의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3행(공정·소통·배려) 3무(부패·청탁·갑질)' 실천 결의 등을 다졌다.

간부들은 또 반부패·청렴 기반 구축, 청렴·공정 내재화,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3개 중점분야와 27개의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청렴 시책

관련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앞으로 광주시장이 출연하는 '공정 청렴이다'를 주제로 하는 동영상 제작, 간부공무원의 청렴에 대한 생각을 전하는 '중요한 건 청렴한 마음' 편지 공유, 신고자의 익명 보장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열목어가 사는 세상' 개설, 공감하고 소통하는 참여형 교육콘텐츠 '영화가 좋다', 판소리 '신(新)별주부전' 등 도입, 외부고객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감사위원장의 찾아가는 현장소통방' 운영 등 새로운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를 정례화하고, 소통·배려하는 행복한 직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강기정 시장은 "많은 사람이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산다고 말하지만 1급수에는 열목어 등 1급수 물고기가 산다. 간부공직자들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소통과 배려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청 간부들이 지난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달라진 광주 청렴회의에 참석해 친필로 작성한 청렴레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전기차 충전인프라 31기 추가 확충

환경부 공모 선정 국비 등 11억 확보...공공시설 등 18곳 설치 장소·공동사업자 사전 확보 등 철저한 준비로 성과

광주시는 "환경부 '2024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31기를 추가 확충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및 민간투자 11억원을 유치하고, 시민이 자주 찾는 공공시설·공

영주차장 등 18개소에 31기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광주시가 충전기 설치장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자부담으로 지정 장소에 충전기를 설치한 후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산하기관과 자치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설치장소를 사전 확보했다. 또 자체 공모를 통해 공동참여 사업자 (SK일렉트릭)도 선정했다.

손인규 광주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이번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 선정으로 전기자동차 기반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를 이끌어 냈고, 국비도 유치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면서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교통공사, 철도토목 현장 진로 체험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서 지역의 철도토목분야 진로를 희망하는 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로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 진로체험'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 차량기지 내 정비고선에서 펼쳐진 이번 체험학

습에는 전남공업고등학교 학생 10여명이 참여해 레일 절단 시 응급조치 방법 등 다양한 실무 기술을 경험했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장비를 다뤄보며 향후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을 높이고, 선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유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 시, 사업비 17억·1025대 확보

광주시는 "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추가 지원분은 1025대다.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상시 접수받고 있으며,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이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자동차등록을 유지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조기폐차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뒤 차량 상태 점검 때 정상가동 판정 차량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4등급은 총중량 3.5t 미만 최대 800만원, 3.5t 이상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생물다양성 보호 장로국가습지·황룡강·대촌천 등 4개 구역서 교란식물 제거

광주시는 "시민과 함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생태계 교란식물은 외국에서 유입됐거나 특정지역에서 자생하는 생물 중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종으로, 환경부 고시에 따라 현재 총 37종 1속이 지정돼 있으며 식물은 17종이다.

이번 사업은 '2024년 광주 생물다양성의 달' 연계 행사로 생물다양성 증진 및 고유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실시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오는 10월까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나선다. 광주시는 장로국가습지, 남구는 대촌천·수춘천, 광산구는 황룡강 일대에서 환상덩굴·양미역취·가시박 등 교란식물을 집중 제거한다.

광주시는 2019년부터 폭넓게 분포돼 고유종을

고사시키는 생태계 교란식물 5종, 총 102t을 제거하는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쓰고 있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생태계 교란종은 번식력과 자생력이 강해 생태계 균형의 위협요인으로 지속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토종서식지와 고유 생물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보건환경연, 낙농 원유 정기 위생검사

집유업체 1곳·착유농가 6곳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낙농 원유를 수집하는 광주지역 집유업체 1곳과 착유농가 6곳을 대상으로 정기 사전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2020년 국가 잔류물질 검사체계(NRP) 시행에 따라 지역 집유 업체 1곳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원유를 수거해 항생제와 살충제 등 잔류물질을 정밀검사하고 있다.

또 집유장의 가공 전 자유조 원유 전량에 대해

53종 항생제와 살충제 정밀검사를 48시간 이내 신속 실시한 후 유통해 원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착유농가 6곳을 대상으로도 해마다 6회 이상 집중적으로 착유 위생 상태, 젖소 사육실태를 조사하는 착유 가축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현철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광주에서 생산·유통되는 우유 및 유제품을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사전 위생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